

## 설화 속 ‘돌-여자’로의 변신에 나타난 사물화의 의미\*

-〈장자못 전설〉과 〈망부석 설화〉를 중심으로-

정경민\*\*

### 〈차례〉

1. 서론
2. 이야기가 된 사물, ‘돌-여자’
3. 사물화를 통한 시공간의 재구성과 규범적 힘
4.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 설화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여성이 돌로 변하는 모티프를 기존의 결말 중심 서사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이야기 생성의 조건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장자못 전설〉과 〈망부석 설화〉이며, 신유물론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여성이 돌로 변하는 사물화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돌-여자’로의 변신을 주로 금기 위반에 대한 처벌, 욕망의 좌절, 혹은 정절과 같은 윤리적 가치의 상징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본고는 ‘돌-여자’로의 변신을 서사의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출발점으로 파악한다.

이를 위해 ‘돌-여자’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인간 존재가 비인간 물질로 이행하는 과정을 단절이 아닌 존재 양식의 전환으로 이해하였다. ‘돌-여자’는 인간으로서의 행위성을 상실하는 대신 특정 장소에 고정된 사물로서 지속성을 획득하며, 반복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전시적 존재가 된다. 이러한 물질적 지속성은 설화를 특정 공간에 정착시키고, 구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도록 하는 서사적 행위성으로 이어진다. 즉 ‘돌-여자’는 더 이상 서사의 결과물이나 잔여물이 아니라 이야기

\* 이 논문은 2025년 한국고전연구학회 133차 동계학술대회에서 ‘소외된 몸과 물질성, 그리고 고전문학’이라는 기획주제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의 발생과 전승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기능한다.

또한 ‘돌-여자’는 다양한 정동을 유발하며, 이를 통해 단일한 의미로 환원되지 않는 다층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작용을 ‘규범적 힘’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명시적 교훈이나 도덕적 명령과 같은 강제적 규범이 아니라 사물이 특정 장소에 놓여 반복적으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비강제적이고 유동적인 영향력이다. 동일한 돌을 마주하더라도 개인의 경험과 이해의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감응과 판단이 발생하며, 이러한 차이의 축적 속에서 규범은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변형되는 효과로 작동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설화를 인간 중심의 의미 전달 체계로 환원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물과 장소, 정동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적 생성 과정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설화 속 변신 모티프를 사물의 물질성과 지속성, 그리고 비인간 행위성의 관점에서 재사유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설화 연구의 해석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돌-여자, 사물화, 신유물론, 서사적 행위성, 장소성, 전시성, 정동, 규범적 힘

## 1. 서론

한국 설화에서 변신 모티프는 다수의 이야기 유형에 수용되어 있다. 변신(變身)은 몸의 모양을 바꾸거나 혹은 그 바꾼 몸을 의미<sup>1)</sup>하는 것으로, 변신 모티프가 수용된 설화는 등장인물의 외적 변모를 전제로 진행된다.<sup>2)</sup>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변신 항목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2) 이에 대해 강진옥은 설화 속 변신 현상이 단순한 개체 내부에 한정된 변화가 아닌 변신물과 인간 간의 일정한 관계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설화 구성 양상을 중시하여 변신 설화의 개념을 단순한 외형적인 변형에만 한정하기보다 그것은 관계양상을 감안했을 때 설화 의미론적 특성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변신설화는 인간과 자연물 간의 관계양상을 보여준다고 보고, 그 핵심사건은 ‘정체 확인’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변신 모티프는 동서고금의 설화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한국 설화에서도 변신 모티프가 수용된 이야기 유형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sup>3)</sup> 변신 모티프를 수용한 이야기는 자료 유형이 풍부할 뿐 아니라 변신 모티프는 여러 서사 장르에서 상상력의 원천으로서 활용된 가장 오래된 모티프 중 하나<sup>4)</sup>이다. 이에 주목하여 그간 여러 연구를 통해 설화 속 변신의 의미가 구명되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설화 속 변신은 신성성의 발현으로, 욕망의 좌절이나 원한 등 강렬한 정념에 의한 변형으로, 금기 위반 등 일정한 행위에 의한 처벌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많은 변신의 양상 중 여성이 돌로 변하는 서사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성이 돌로 변한 대표적 한국 설화로는 <장자못 전설>과 <망부석 설화>를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간이 돌(바위)로 변하는 이야기 유형은 몇 가지 더 있지만<sup>5)</sup> <장자못 전설>과 <망부석 설화>가 가장 전승이 활발하고 전승자들에게 잘 알려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 두 설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두 설화에서 여성은 생물학적 죽음으로 소멸하지 않고, 돌이 되었다. 그

강진옥, 「변신설화에 나타난 세계인식(2)-짐승원귀환생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88, 327~349쪽.

강진옥, 「변신설화에서의 '정체확인'과 그 의미」, 『진단학보』 73, 진단학회, 1992, 165~185쪽.

- 3) 한국설화유형분류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1)』, 1989)에 의하면 1부터 8까지의 유형 번호 중 6에 해당하는 자료들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 4) 강진옥은 “문학사 최초 자료인 신화를 비롯한 설화는 물론, 기록문학에서도 중요한 상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모티프의 하나라는 점”과 “우리 설화 전반에서 변신 모티프를 수용하고 있는 비중이 큰 점”은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해 준다고 하였다.- 강진옥(1992), 위 논문, 166쪽.
- 5) 한국설화유형분류집의 <541 나쁜 사람 망하고 자취 남기> 중 ‘541-1 시주 온 스님 박대하다 생긴 장자못’ 유형과 <542 사람(동물)이 바위로 변하기>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542 사람(동물)이 바위로 변하기>의 하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542-1 남편 기다리다 망부석 되기/542-2 사랑을 이루지 못해 바위 되기/542-3 벌을 받아 바위 되기/542-4 원통해서 바위 되기/542-5 우연히 바위 되기

리고 여성이 돌로 변한 데서 서시는 종결된다. 또 여성이 변한 돌의 존재는 설화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증거물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보면 여성이 변한 돌의 존재는 이야기의 끝, 즉 서사의 결과로 간주된다. 그런데 구비 전승의 맥락에서 돌은 단순한 결말의 표식이 아니라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설화의 전승자들은 돌을 보고, 돌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서 이야기를 재생,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변신체인 돌이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사물이라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사람들이 그 돌을 보고, 가리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화를 다시 이야기하고 새롭게 해석할 때 돌은 이야기를 촉발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존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신유물론의 관점<sup>6)</sup>을 도입하고자 한다. 신유물론은 사물(비인간, 물질)을 단순한 인간 의미의 담지체로 보지 않고, 관계망 속에서 작동하는 행위적 존재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장자못 전설>과 <망부석 설화> 속 ‘돌-여자’는 금기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나 욕망의 좌절, 과잉 정념의 상징적 표상이 아니라 인간·장소·이야기와 얽혀 새로운 효과를 생성하는 사물 행위자라 할 수 있다. 특히 돌이라는 물질은 이동하지 않고 특정 장소에 오랜 시간 머물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인식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물질적 조건은 ‘돌-여자’가

6) 신유물론의 패러다임에 속하는 이론들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이 공유하는 핵심적 특징들은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관계적 물질성, 비인간 행위성, 탈이원론적인 평평한 존재론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제인 베넷의 ‘생기적 유물론’, 카렌 바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을 주로 참고하고자 한다. 신유물론 전반에 대한 이해는 다음 글들을 참고하였다.

브뤼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2009, 1~404쪽.

브루노 라투르 외, 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 이음, 2010, 1~366쪽.

제인 베넷, 문성재 옮김, 『생동하는 물질』, 현실문화, 2020, 1~334쪽.

몸문화연구소, 『신유물론』, 필로소피, 2022, 1~291쪽.

심귀연, 『이 책은 신유물론이다』, 날, 2024, 1~182쪽.

구비 전승의 시작점이자 중심에 놓일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다.

이 글의 목적은 <장자못 전설>과 <망부석 설화>를 대상으로,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여성이 돌로 변하는 모티프를 재해석하는 데 있다. 즉 기존에 처벌 서사나 도덕적 교훈 서사로 이해해 온 틀을 넘어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물화’라는 개념을 주목하려 한다. 사물화는 대상화가 아닌, 인간 존재가 비인간 물질로 이행하는 존재 양식의 전환이다. <장자못 전설>의 며느리와 <망부석 설화>의 아내는 돌로 변함으로써 생물학적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고, 돌이라는 사물의 형태로 그 존재를 지속하며 새로운 관계망 속에 편입되었다. 이때 사물의 형태가 돌(바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정 장소에 고정되면서 ‘장소성’을 지니게 되고, 이와 함께 언제라도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전시’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돌-여자’가 ‘사물화’를 통해 ‘장소성’을 확보 하면서 규범적 힘을 형성한다는 점을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즉 전시된 사물로서의 ‘돌-여자’는 반복적으로 마주치며 다양한 정동을 유발하고, 관계 맺기의 양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수반하면서 동일한 교훈이 아닌, 유동적이고 다층적인 규범적 효과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설화 속 “여성은 왜 돌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돌이 된 이후 ‘돌-여자’는 무엇을 하는가”이다.

## 2. 이야기가 된 사물, ‘돌-여자’

### 1) 돌로 지속되는 여성의 존재 양상

<장자못 전설>과 <망부석 설화>의 내용을 차례로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7)</sup>

7) 본고의 목적은 본격적으로 설화 유형을 연구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구비설화와

어느 날 인색하기로 유명한 장자의 집에 시주승(施主僧)이 찾아와 시주를 청한다. 장자가 시주 바가지에 쇠뿔을 가득 퍼담아 시주승을 내쫓았는데, 그 집 며느리가 시아버지 몰래 따라 나와 깨끗한 쌀을 바가지에 담아 주었다. 시주승이 며느리에게 지금 바로 가장 소중한 것만 챙겨서 자신을 뒤따라오라고 말한다. 며느리가 자신의 아기를 안고, 혹은 기르던 개를 안고 시주승을 따라나선다. 시주승이 며느리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며느리의 뒤에서 갑자기 ‘우르르 쿵쿵’하는 커다란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니, 자신이 살던 장자의 집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못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뒤를 돌아본 순간 돌이 되고 말았다. 며느리와 함께 그녀의 아기와 뒤따르던 개도 그 자리에 선 채로 돌이 되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장자의 집이 무너져 내린 후 생긴 못을 장자못이라고 부르고 돌이 된 며느리를 며느리바위라고 부른다.<sup>8)</sup>

<장자못 전설>

<망부석 설화>는 멀리 떠난 남편이 약속한 기한에도 돌아오지 않자 기다리던 아내가 돌이 되었다는 내용의 설화이다. 아내가 선 채로 그대로 돌이 된 유형, 아내가 죽은 후에 돌이 된 유형, 아내가 스스로 몸을 던져 죽은 자리에 돌을 세운 유형, 원래 돌이 있었고 그 돌 곁에서 남편을 기다려서 ‘망부석’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내용의 유형 등이 있다. <망부석 설화>의 대표적인 예로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실린 신라시대 박제상(朴堤上)의 아내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에서 박제상의 부인은 치술령에서 죽어 망부석이 되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눌지왕 때 고구려에 불모로 잡혀간 왕제(王弟)를 구해 온 박제상은 집에도 들르지 않고 바로 일본에 건너가 또 다른 왕제를 구해 보낸 뒤 일본에서 신라의 신하임을 고집하다 죽는다. 이때 그의 아내는 일본에 간 남편을 기다리다 죽어서 망부석이 된다.<sup>9)</sup>

<망부석 설화>

문헌설화를 비교하거나 구비설화의 각편들을 비교·검토하는 등의 자료 양상은 따로 정리하지 않는다.

8) [출처: 장자못 설화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8771>

〈장자못 전설〉과 〈망부석 설화〉에서 여성이 돌로 변하는 장면은 인간적 삶의 종결을 알리는 극적인 사건으로 제시된다. 〈장자못 전설〉의 며느리는 금기를 어기고 뒤를 돌아본 순간 돌이 되어 연못가에 남고, 〈망부석 설화〉의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 돌로 굳어 특정 장소에 고정된다. 〈망부석 설화〉의 대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박제상 부인 이야기의 경우 각편마다 돌로 변신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지만<sup>10)</sup> 여성이 돌로 존재 전환되었다는, 혹은 돌이 여성 존재의 연속체라는 큰 틀의 설정은 동일하다. 여성 인물이 돌로 변했다는 점에서 여성과 돌, 두 존재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며, 여성이 돌로 변환 이후의 상태는 단순한 소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존재가 지속되는 방식의 전환으로 나타난다.<sup>11)</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여성이 변환

9) [출처: 망부석 설화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7863>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이 돌이 되었다는 내용의 설화는 『삼국유사(三國遺事)』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수록된 박제상 부인의 이야기 외에도 여러 편이 문헌에 실려 전한다. 문헌에 기록된 이야기 중에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행동을 정절(貞節)의 화신으로 의미화하는 것들도 있다. 돌이 되는 석화(石化)의 모티프가 붙지 않고 아내가 기다리던 자리에 돌이 있었다거나 아내가 죽은 자리에 돌이 세워졌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이야기들도 있다. 구비설화의 경우 대부분 『삼국유사』의 박제상 부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승되었다.

10) 『삼국사기』의 경우 박제상 부인의 서술은 매우 소략하여, 남편이 왜로 떠나는 포구에 부인이 달려가서 배를 바라다보며 대성통곡으로 “잘 다녀오시오”라고 했다는 정도에 그친다. 반면 『삼국유사』에서는 부인의 행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삼국유사』에서 부인에 대한 서술은 부인이 박제상이 떠나자 얼마나 운몽으로 슬퍼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죽음 이후 치출신모가 되었다고 하여 돌로 변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비설화에서는 부인의 몸이 망부석이 되기도 하고, 새가 되었다가 바위 틈에 날아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고도 하며, 부인이 죽은 장소의 바위를 망부돌이라고 부른다고도 하여 서사적 변이를 보여주면서도 돌과의 연관성이 일관되게 드러난다. 박다원은 이같은 전승의 양상을 살피며 구비설화를 파생 열부설화라고 하고, 이를 ‘신이 된 열부형’, ‘은율이 된 열부형’, ‘원혼이 된 열부형’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박다원, 『『삼국유사』 <내물왕 김제상>과 그 파생 열부설화의 전승의식 비교』, 『국학연구논총』 20, 태민국학연구원, 2017, 153~183쪽 참조.

11) 최학출은 설화의 ‘석화(石化)’ 모티프의 대표 유형으로 <장자못 전설>과 <망부석

돌을 ‘돌-여자’<sup>12)</sup>로 명명하고자 한다.

‘돌-여자’라는 용어는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변신 이전과 이후의 존재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며,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존재의 전환과 지속, 혼중성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적 장치이다. ‘돌-여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변신 이전의 인간 여성과 변신 이후의 돌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 명명은 여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돌만 남은 것이 아니라, 여성의 존재가 돌이라는 물질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신유물론이 제안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 즉 인간과 비인간이 관계 속에서 얽혀 작동한다는 관점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시기 보안면 상입석리라고 있어. [조사자: 상입석리요?] 응. 상입석리여. 상입석리에서 한 4킬로쯤 되어 응, 한 4기로 쯤 더 가서 장자못이라고 있어. (중략) 아, 돌아봤더니만 그래 [목소리를 높인다] 그렇게 그냥 바우, 바우가 [조사자: 돌이 돼버렸구만요] 돼버렸어. 그래서 말하자면 시방 선돌이여. 입석리, [조사자: 돌석자, 입석이구먼요?] 선돌인디, 애기를 업고 갔는디, 애기 업은 것이 꼭 애기 업은 것 같이 생겼어. 뒤에가 뒷꼭지가.

『대계』<sup>13)</sup> 5-3 <상입석리의 장자못 전설>

설화)를 제시하고, 박제상 부인의 ‘석화(石化)’에 대해 삶도 죽음도 아닌, 제3의 길이라고 하였다. 박제상 부인은 스스로를 소멸시키기보다 더욱 견고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만남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했으며, 그 존재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가시적 형태가 ‘석화(石化)’라는 것이다. 또 망부석의 돌은 죽어 있는 돌이 아니라 그 자체 내의 영속적 생명이 비극적 상황에 대한 부인의 극복의지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형성된 것이라 하였다.- 최학출, 「설화 모티프의 시적 변용-“석화”와 “거울화” 모티프를 중심으로-」, 『울산어문논집』 2,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85, 192~195쪽.

- 12) ‘돌-여자’라는 용어는 한강 작가의 단편소설 <작별>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에 대한 작가의 호명인 ‘눈-여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변용한 것이다. <작별>은 어느날 갑자기 눈사람으로 변한 여성의 이야기인데, 한강은 자신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성 주인공을 ‘눈-여자’라고 명명하였다.

인용문의 설화에서 며느리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감한 순간 '돌-여자'로 변신하여 장자못이라는 장소와 결합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며느리가 돌이 된 그 사건이 사건 발생지의 지역명이 되었다. 따라서 이 '돌-여자'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연못의 기원과 의미, 그리고 지역명의 유래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또, 설화에서는 현재 돌의 형상이 변신 이전의 며느리의 모습과 얼마나 동일한지 강조하고 있다. 아이를 업고 돌아보기 위해 뒤로 고개를 돌린 순간의 정지된 자세, 그 모습 그대로의 형상을 돌이 보여준다고 하였다.

〈망부석 설화〉 역시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그래 세 모녀가 숨이 떨어지자 그 세 모녀의 혼이 새로 변해가지고 혼조(魂鳥)로 변해가지고 그 마을 상공을 빙빙 세 마리의 새가 혼조가 날아서 돌았다 그렇니다. 마을의 상공을 빙빙 돌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새가 날아가 돌았던 마을에 지금도 가면 두동면 만화리 옆에 비조, 날 비짜(飛字), 새 조짜(鳥字) 비조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비조라는 마을 이름이 유래가 그렇게 되었대요. 마 우연히 갖다 붙인 건가 전설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돼서 비조라는 마을이 생겨났고, 망부석(望夫石)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는 바라을 망짜(望字), 지아비 부짜(夫字) 그 꼭대기 720고지 바위에 올라 서서 동해바다에 남편이 돌아오기를 참, 참 일구월십 학수고대 기다리던 그리고 바라보던 자리다. 그래서 지아비를 바라보면서 서서 있던 바위다, 그래서 망부석이다.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그 세 모녀가 죽어가지고 그 바위 망부석으로 화석이 되었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대계』 8-12 <치슬령 망부석>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알고(혹은 감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리고 새가 되어 바위로 숨어들거나 망부석이 되었다. 남편

13)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를 줄여 『대계』라 지칭하도록 하였다.

을 기다리던 아내는 결국 돌로 변하지만, 이 변신은 기다림이나 정념의 종결이 아니다. 인간의 신체로 감당할 수 없었던 강렬한 정념은 ‘돌-여자’의 형태로 고정되어 지속된다. ‘돌-여자’는 더 이상 울부짖거나 한없는 기다림으로 인한 절망과 고통을 호소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음으로써 그 정념은 현재화된다.<sup>14)</sup>

<장자못 전설>의 며느리와 <망부석 설화>의 아내는 돌이 됨으로써 말을 잃었고, 이동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간으로서의 행위성을 상실한 대신 돌이라는 사물의 지속성을 획득하였다.<sup>15)</sup> 신유물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지속성은 단순한 물질적 존속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효과를 생산하는 행위적 조건이 된다. 말하자면 두 여성은 돌로 변함으로써 오히려 더 넓은 관계망 속에 편입되었다. 이들은 자연물, 장소, 이야기, 그리고 이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얽히며 관계를 맺음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존재 양식으로 전환된 셈이다. 또, 이들의 정념은 인간으로서의 육체와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돌이라는 사물에 잠재되었다. ‘돌-여자’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매개체로 작동하기 때문이다.<sup>16)</sup>

14) 황인순은 박제상 부인의 ‘치술신모 되기’ 혹은 ‘망부석 되기’의 행위에 대해 “이 같은 대상들은 시간적 한계를 극복한 존재들을 일종의 형상으로 담화화한 것”이라고 하고, “시간의 영속성을 획득하려는 정념에 기반한 행위”이자 “정념의 형상화로서의 행위”라고 하였다. 특히 망부석은 ‘기억’의 매개로, “박제상 부인의 정념의 종결은 ‘몸화’된 채로 ‘굳어진다’. 혹은 그것은 시간의 흐름에 동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억된다’고 하였다.-황인순, 「애정의 정념 양상과 의미작용-삼국유사 <박제상 설화>를 대상으로」, 『시학과 언어학』 17, 시학과언어학회, 2009, 83~85쪽.

15) 로지 브라이도티는 “-되기가 상호연결성을 유지하고 발생시키는 능력과 친밀감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되기’는 “재생산이나 모방이 아니라 오히려 공감의 근접성과 강렬한 상호연결성”이라는 것이다.-로지 브라이도티, 김은주 옮김, 『변신: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꿈꾼문고, 2020, 15~25쪽 참고.

16) 정동의 이론화에는 “인간/비인간의 본성을 내밀하게 뒤섞인 것으로 보는 방식”이 포함되며, 정동이론에서는 “무언가에 정동된다는 것은 곧 그 사물을 평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장자못 전설>과 <망부석 설화>에서 돌로 지속되는 여성의 존재는 설화의 결말을 근본적으로 다시 읽게 한다. ‘돌-여자’로의 변신은 서사적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서사의 중심이 인간에서 사물로 옮겨가는 전환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돌이라는 형태로 특정 장소에 고정됨으로써 반복적으로 지시되고 이야기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설화의 생성과 전승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존재 양상의 전환으로 ‘돌-여자’는 더 이상 침묵의 죽은 존재가 아니라 이야기의 생성 조건이 된 셈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은 사물의 지속성이 어떻게 ‘서사적 행위성’으로 연결되는지, 즉 ‘돌-여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의 발생과 전승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돌-여자’의 서사적 행위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자못 전설>과 <망부석 설화>에서 여성이 돌로 변한 이후의 상태는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전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사물의 지속성이 어떻게 서사적 행위성<sup>17)</sup>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서사적 행위성이란 ‘돌-여자’가 인

다. 평가는 신체가 사물을 향하는 방식 속에서 표현된다.”고 한다.-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역, 『정동이론』, 갈무리, 2015. 23~65쪽 참고.

17) 신유물론 생태비평의 주장은 세계의 물질 현상이 형성 중인 내러티브와 이야기들로 서 읽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일종의 “이야기가 된 물질”인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과 비인간이 창조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이다. 즉 물질의 “서사적 행위성”과 “인간의 창조성”이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담론과 현실이 창발한다는 것이다. 이 서사적 창발은 현실을 증폭시키고 이런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 반응에 영향도 준다고 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텍스트가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텍스트가 행위적으로 얽혀있다고 읽으며 텍스트 해석을 “압힘의 실천”으로 여긴다. 신유물론 생태비평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였다.- 박신현, 「여성과 비인간의 이야기하는 몸: 물질적 텍스트의 해석과 번역」, 『비평과 이론』 28권 1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23, 67~70쪽.

간처럼 의도적 발화나 행위를 수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야기의 발생과 전승을 촉발하고 구조화하는 조건으로 작동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행위성은 인간에게 독점된 속성이 아니며, 비인간 역시 관계 속에서 효과를 생산함으로써 서사적 작동에 참여할 수 있다.

〈장자못 전설〉에서 돌이 된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이야기에 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며느리가 변한 돌은 장자못이라는 장소의 기원을 설명하는 핵심적 기능을 한다. 많은 각편에서 〈장자못 전설〉은 지역의 이름, 못의 존재와 위치, 그리고 돌의 존재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위에 또 산끼에 유명한 기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이 그 그늘에 가리워져서 이제, 그 명승지가 안된 것이 많은데, 거 가면 광질바우니 연자못<sup>18)</sup>이니 참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거는 워낙 약산 동녕굴 묘향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그늘에 가려서 맥을 못취요. 그런 것이 아마 횡성쯤 왔으면 그 그늘에 가리운 것들도 광자바우 같은 것들도 왔대면 참 아마 경치 좋다고 관광지로,

『대계』 2-7 <영변 장자못 전설>

위 인용문처럼 이 유형의 설화는 대표적인 지역 자연물인 연못과 며느리 바위의 존재를 언급한 후 이에 얽힌 이야기가 진행된다. 또, 설화는 며느리의 죽음이나 변신으로 종결되지 않고, 그 돌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는 진술을 통해 현재의 세계와 연결된다. 이때 ‘돌-여자’는 과거 사건의 흔적이나 잔여물이 아니라 이야기를 다시 말하게 만드는 물질적 계기가 된다. 사람들은 연못가의 돌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때 ‘돌-여자’는 서사의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망부석 설화〉에서도 유사한 서사적 작동을 확인할 수 있다.

18) 며느리 바위와 장자못을 의미한다.

치술령 관계에 대해가주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서(여기서) 보이는 치술령, 요새 젊은 사람 알고 있는 거 보다도, 그 고 지역적이나 고 절터에, 고 현재 있는 절이나 고계 있는 반석이나 볼 때에, 그 참 남편을 기다리다가, 역시 고 뻘히 보이는 돌이 망부석이라 켜고, 그 막을 매(지어) 놓고 주야로 참, 자가마(자면서) 했이, 그 터에 절을 지었어. 거기 원원암이라. 남사라. 고 바로 밑에 동네에 지며 (지명)이 비조(飛鳥)라.

『대개』 7-2 <치술령>

지금 그 치술령의 높이가 해발 720입니다. 경상북도하고 남도하고 경계로 돼 있는데, 그 위치가 지금 모하(毛火)에서 쳐다보이고 또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에 서 또 동쪽으로 솟아 있고, 그 다음 경주 그 남산하고 쪽 내려와 연결된 봉우리 지요. 이 치술령 망부석 얘기는 삼국유사에도 일부 비쳐 있습니다만은, 삼국사기에는 산의 정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대개』 8-12 <치술령 망부석>

두 인용문은 모두 이야기의 시작부로, 망부석의 존재와 망부석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다. 대개 망부석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높은 장소에 위치한다. 이는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는지 빨리 보려고 가장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적 특성이 돌이 된 이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요소가 되었다. 망부석을 인식한 사람들은 왜 이 돌이 이곳에 있는지 질문하게 되고, 그 질문은 곧 설화의 재생산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돌-여자'는 이야기의 결과물이 아닌, 이야기의 발생 조건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서사적 행위성은 '돌-여자'의 물질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돌은 이동하지 않고 특정 장소에 머무르며,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형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물질적 안정성은 설화가 특정 사물에 기반을 둬으로써 반복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한다. 구비설화는 텍스트로 고정된

서사가 아니다. 말해지는 상황 속에서 매번 새롭게 구성된다. 이야기될 때마다 이야기의 세부 내용이나 강조점은 달라질 수 있지만, 돌이라는 사물과 그것이 놓인 장소는 비교적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로써 ‘돌-여자’는 설화의 변이 가능성을 허용하면서도 이야기의 핵심은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돌-여자’가 서사의 중심을 점유함으로써 전승의 구조적 조건이 됨을 의미한다. 신유물론에서 행위성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효과로 이해되는데, ‘돌-여자’는 인간으로서 발화하지 않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도록 만들며, 이야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서사적 행위자로 기능한다.<sup>19)</sup>

더 나아가 ‘돌-여자’의 서사적 행위성은 서사의 초점을 변화시킨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서사에서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 인물의 선택과 책임이 강조된다. 그러나 ‘돌-여자’가 중심에 놓이게 되면 사건의 인과보다 왜 이 돌이 여기에 있는가, 이 장소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와 같은 질문이 전면에서 등장한다. 이는 서사의 관심이 인간의 내적 서사에서 사물과 장소의 관계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돌-여자’는 인간 중심적 서사 구조를 교란하며 비인간 행위자가 이야기의 핵심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장자못 전설>과 <망부석 설화>의 ‘돌-여자’는 침묵함으로

19) 이러한 관점은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라투르는 행위자를 행위의 원인이 아니라, 작용이 발생하도록 연결망을 구성하는 매개자로 정의한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비인간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행위자(actor)이고, 비인간도 우리 인간의 행위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의 행위능력(행위성, agency)을 가지고 있다. 이때 행위성은 단일 주체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간·비인간·담화·장소가 얽히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즉 행위능력이란 나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숱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관계적 효과’로 볼 수 있다. - 브루노 라투르 외, 홍성욱 엮음, 『제1장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인간·사물·동맹』, 이음, 2010, 브뤼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2009, 15~35쪽 참고.

써 오히려 더 많은 말을 생산해 내는 증언자로 볼 수 있다. 그녀는 서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강력한 서사적 행위성을 획득하였다. 요컨대 서사적 행위성은 사물이 인간처럼 말하거나 행동한다는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sup>20)</sup> 사물이 서사의 조건으로 기능함으로써 이야기의 생성과 전승을 조직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러한 행위성은 설화 속 '돌-여자'를 비극적 결말이나 도덕적 교훈의 장치로 환원하지 않고, 이야기 자체를 지속시키는 물질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후 논의할 전시성과 장소성, 그리고 규범적 힘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다음 장에서는 '돌-여자'가 전시된 사물로서 장소를 재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규범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사물화를 통한 시공간의 재구성과 규범적 힘

#### 1) 장소성의 생성과 사물의 시간으로의 이행

본 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돌-여자'의 서사적 행위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 공간과 시간 속에서 구체화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설화 속 '돌-여자'는 추상적 의미나 상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 놓인 사물로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어당기는 실재로 존재한다. 이때 돌의 물질적 지속성은 이야기를 공간에 정착시키며, 설화를 과거의 사건에서 현재의 경험으로 전환시킨다. 다시 말해 '돌-여자'는 사물로 존재함으로써 장소를 점유하고, 인간의 시간과는 다른, 사물의 시간으로 이행한다.

2장에서 '돌-여자'는 돌과 여자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허문 존재, 사물로 전환하여 지속되는 존재라고

20)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사물화는 의인화와는 정반대 방향의 상상력을 의미한다.

하였다. <장자못 전설>과 <망부석 설화>에서 ‘돌-여자’는 서사적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특정한 위치에 지속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이야기를 장소에 고정시키고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조건을 형성하였다. 이때 돌은 이야기가 ‘있었던 곳’을 표시하는 표식이 아니라 이야기가 ‘계속해서 말해지는 곳’을 만들어내는 물질적 매개체로 작동한다.

구비설화, 특히 전설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물을 가리키며 구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장소성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저 돌이 바로 그것이다”, “그 새가 들어간 바위가 저기 있다”라는 지시 행위는 서사의 신빙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이야기를 추상적 시간에서 끌어내 구체적인 공간에 정착시킨다. 이때 ‘돌-여자’는 이야기의 의미나 주제, 변신의 원리를 상징하는 객체나 대상이 아니라 이야기를 현실 공간에 접속시키는 물질적 근거로 기능한다.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장소는 인간과 비인간, 기억과 물질, 정동과 담화가 얽히며 생성되는 과정적 결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돌-여자’는 사물화를 통해 일정 장소를 점유함으로써 서사적 장소를 ‘발생’시키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돌이 특정한 위치에 지속적으로 놓여 있음으로써 그 주변 공간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닌 설화적 장소로 전환된다.

21) 제인 베넷은 ‘생기적 유물론’을 주장했는데, 그에 의하면 인간과 물질이 능동성과 수동성으로 이원화되지 않고, 물질도 인간처럼 생동하는 능동성을 가진다. 여기서 생기란 사물들이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변형하는 힘을 가진다는 것으로, 달리 말하면 사물의 역량을 의미한다. 이 사물이 가진 기인한 능력을 ‘사물-권력’이라고 하는데, 사물들은 그 사물이 어떤 장소와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제인 베넷에 의하면 사물들은 있는 그대로 그곳에 있었으며,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력하다고 여겨지지만 각각의 사물들 내부에 있는 강력한 활기를 엿볼 수 있다. 이 배치에서, 객체들은 사물로서, 즉 인간 주체가 그것들에 부여하는 맥락으로 온전히 환원될 수 없는, 그것들의 기호로 절대 완전히 고갈되지 않는 생생한 실체로서 드러난다.-심귀연, 『이 책은 신유물론이다』, 날, 2024, 92~113쪽, 제인 베넷, 문성재 옮김, 『생동하는 물질』, 현실문화, 2020, 9~46쪽 참고.

<장자못 전설>에서 며느리가 돌로 변한 이후 남은 것은 장자못이라는 장소 자체이다. 장자못은 탐욕에 대한 처벌의 결과로 형성된 공간이자 서사적 사건을 기억하도록 강제하는 물질적 장치이다. 장자못은 장자의 생애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되며, 지나가는 이들로 하여금 “왜 이곳이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유발한다. 이 질문은 다시 이야기를 호출하고, 이야기는 장소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소환한다. 이처럼 ‘돌-여자’의 존재는 장소와 서사가 상호 구성되는 사례가 된다.

<망부석 설화>에서도 돌은 특정한 장소를 설화적 장소로 전환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기다림이란 태도이자 행위이고, 상태이며, 정동이다. 그런데 <망부석 설화> 속 아내의 기다림은 단순한 감정 상태나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정동과 행위가 중첩된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아내의 기다림은 이동이나 동적 행위가 아닌 특정한 자리에 머무르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 머뭇는 단순한 정지 상태가 아니다. 시선의 방향, 신체의 자세, 남편에 대한 복합적인 정념을 수반한다. 즉 설화 속 아내의 기다림은 장소를 떠나지 않음으로써 장소성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신체가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고 정동이 해소되지 않은 채 지속될 때 기다림은 더 이상 인간의 감각에만 귀속되지 않고 물질로 응축된다. 돌로 변한 여성은 이 과정의 결과이자 동시에 기다림이 장소와 결합해 형성된 사물의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장소성의 생성은 시간에 대한 인식 방식의 변화와도 깊이 연관된다. 인간의 시간은 사건의 시작과 끝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돌-여자’의 시간은 그러한 서사적 종결에서 비껴나 있다. 돌은 늙지 않고, 죽지 않으며, 사건 이후에도 동일한 형태로 지속된다. 돌이라는 사물의 시간이 변화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인간의 시간에 비해 매우 느린 변화를 전제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돌-여자’가 생성하는 장소성과 사물의 시간은 그 자체로 완결되

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보여짐’의 차원으로 확장된다. 돌이 특정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곧 그 존재가 반복적으로 시선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전시성’은 사물이 그 자리에 놓여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관찰되고, 지시되며, 이야기의 계기가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돌-여자’의 장소적 고정성은 전시성의 전제 조건으로 기능한다. 설화에서 “지금도 돌이 그 자리에 있다”는 진술은 단순한 사실 확인의 발화가 아니다. 돌을 바라보는 행위를 요청하는 발화이다. 이 발화는 돌을 현재의 시선 속으로 끌어낸다. 이때 ‘돌-여자’는 장소에 고정된 사물이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보여지는 존재가 된다. 장소성은 돌을 고립시키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이동과 시선을 그곳으로 집중시키는 장치로 작동한다.

전시된 돌은 침묵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서사적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도록 한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의 경험과 정서에 따라 달라지며, 그만큼 규범의 작동 방식 또한 단선적이지 않다. 이처럼 ‘돌-여자’의 전시성은 장소성과 사물의 시간이 결합된 결과로서, 사물이 어떻게 규범적 힘을 획득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핵심적 경로를 제공한다.

## 2) 전시된 사물의 규범적 힘

이제 <장자못 전설>과 <망부석 설화>에서 돌로 변한 여성이 ‘전시된 사물’로서 어떻게 규범적 힘을 획득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규범적 힘이란 명시적 교훈이나 도덕적 명령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물이 특정한 장소에 놓여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이야기됨으로써 사람들의 판단과 감응을 조직하는 비강제적 영향력을 가리킨다. 이러한 규범적 힘은 설화를 통해 단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시된 사물이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속에서 형성된다.

설화 속 ‘돌-여자’는 의도적으로 ‘보여지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돌이 된 이후 그녀는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지속적으로 사람

들의 시선에 노출된다. 이때 전시성은 제도적 장치나 기획된 연출의 결과가 아니라 사물이 그 위치, 그 자리에 놓여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효과이다. '돌-여자'는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지만 바로 그 침묵과 정지 상태로 인해 오히려 지속적으로 주목받는다.

중요한 점은 전시된 '돌-여자'가 특정한 규범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망부석 설화>에서 돌이 된 아내는 정절이나 충절을 강제하지 않는다. <장지못 전설>의 며느리 바위 역시 주어진 금기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 교훈을 발화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들은 오랫동안 공동체 안에서 윤리적 판단의 준거로 기능해 왔다. 이는 규범이 사전적으로 주어지거나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시된 사물을 매개로 하여 해석과 감응의 과정 속에서 생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규범 작동 방식은 정동 이론과 신유물론의 접점에서 보다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 전시된 '돌-여자'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사람들은 '돌-여자'에 대해 단일하고 강렬한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약간의 슬픔, 연민, 불편함, 불안, 경계와 같은 다양하고 미세한, 불분명한 정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촉발된 정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왜 돌이 되었지?', '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지?'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하고, 이제 사람들은 이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사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망부석을 본 사람들이 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누군가는 '기다림의 미덕'을 읽어내고, 또 다른 이는 '여성 억압의 흔적'으로 이해할 것이며, 어떤 이는 '비극적 사랑'으로 감상할지 모른다. 사회상과 부부 윤리가 달라지면서 누군가는 망부석을 집 밖의 남편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때스운 아내의 전형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동들로 촉발된 사유와 판단은 개인의 경험이나 가치관, 관람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귀결될 것이다. 인식은 감정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돌 앞에서도 다양한 해석과 판단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돌-여자'는 정동과 판단의 통일성이 분

화되는 차이의 장소이다. 바로 이 다양성이 전시된 사물의 규범적 힘을 특징짓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규범은 단일한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고, 해석의 폭을 열어 둔 채 느슨하게 작동한다.

실제로 망부석 설화의 대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박제상 부인의 이야기에서 부인은 치술령 신모로 신격화되어 지역민들에게 신성화되었고<sup>22)</sup>, 신라를 지키는 국가의 수호신(국수봉)이 되었다고 이해<sup>23)</sup>되기도 하였다.<sup>24)</sup> 그런데 구비설화에서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한을 드러내는 양상을 동시에 보여준다.<sup>25)</sup> 이는 서사 내 여성의 행위성과 의례 등 공동체 질서 내에서의 ‘돌-여자’의 행위성이 각각의 층위 내에서 분화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전시된 돌의 규범적 힘은 시간의 축을 따라 누적된다. ‘돌-여자’는 하루 이틀 보여지고 사라지는 대상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장소에 남아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관찰된다. 이 반복성은 규범의 내용을 고정시키기보다는 규범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킨다. 같은 돌이라도 시대

22) 이에 대해 김지혜는 상실을 경험한 자들이 상실의 고통을 기억하고, 불가능한 애도에 동참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전승한다고 하였다.- 김지혜, 「석화(石化) 모티프 등장 설화를 통해 본 상실과 애도의 층위」, 『문학치료연구』 59, 한국문학치료연구학회, 2021, 243~244쪽.

23) 『대계』 8-12 치술령 망부석 참고.

24) 백동인은 문헌 기록과 구비문학 자료 등을 분석하면서 장사, 벌지지, 치술령 등 지명이 모두 박제상 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치술부인은 남편 못지않게 오래 기억되고 존경받은 듯하다고 하였다. 특히 치술 신모는 치술령의 신모로서 사당까지 있었으니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음을 알 수 있고, 장사택과 신라의 몰락 이후 장사와 벌지지의 존재감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특히 치술부인은 사후 신모로 숭배받고, 가계의 시조가 되었음을 언급하며, 그녀가 실성이사금의 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상고기 왕실 여성은 존귀할 뿐 아니라 사제의 재능을 가진 성스러운 존재였음을 상기하였다. 또, 치술부인이 비극의 주인공으로서 호국 산신이 된 것은 후손이 아닌 민중의 사랑을 받은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백동인, 「新羅 金入宅의 여성 시조와 宅主-재매정택과 장사택을 중심으로-」, 『신라사학보』 64, 신라사학회, 2025, 31~38쪽 참조.

25) 박제상 부인 설화의 문헌자료와 구비설화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김정은, 「『삼국유사』와 구비설화에 나타난 <치술령> 전승의 두 양상」, 『온지논총』 24, 온지학회, 2010, 43~72쪽.

와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며, 그때마다 새로운 판단을 유도한다. 이로써 규범은 완결된 교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구성되는 효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돌-여자'의 규범적 힘은 사물화 이후의 전시 상태에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이 돌로 변함으로써 인간의 말과 행위는 중단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사물은 더 넓은 해석의 장을 열었다. 사물화는 여성의 목소리를 제거하는 폭력적 결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동시에 그 사물화된 존재가 전시됨으로써 새로운 영향력을 획득하는 역설적 국면을 형성한다. 물론 두 이야기 유형에서 여성 인물이 돌로 변한 후 획득한 장소성이 결국 '떠나지 못함' 혹은 '떠날 수 없음'을 전제한 남성지배문화의 상흔<sup>26)</sup>, 혹은 오랫동안 굳어진 '정물로서의 여성' 이미지와의 결합으로 읽힐 여지는 부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포함하는, 그러나 그러한 시각에 한정되지 않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결국 전시된 '돌-여자'는 설화 속에서 정해진 규범을 전달하는 도덕적 기쁨몰이나 상징적 표상이 아니다. 그녀는 사물로서,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도록 만드는 조건을 형성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규범적 힘은 명령의 형태가 아니라 정동과 시선, 기억을 매개로 작동한다. 이처럼 '돌-여자'의 전시성은 규범을 고정된 의미가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로 이해하게 하며 설화를 살아 있는 담화로 유지시키는 핵심적

26) 조현설은 망부석 전설은 일반적으로 남성지배문화의 산물이라점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망부석 전설에는 또 다른 측면 공존하는데 그것은 바로 망부석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망부석 전설의 배후에는 돌과 여성적 원리의 관계라는 오랜 역사가 좌정해 있다는 것이며, 이는 치술령 전설이 보여주듯이 박제상의 아내가 망부석이자 치술령의 신모로 지역민들에게 신성화되었다는 사실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뒷받침된다고 했다. 조현설, 「동아시아의 돌 신화와 여신 서사의 변형-모석(母石)·기자석(祈子石)·망부석(望夫石)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6, 한국구비문학회, 2013, 143~144쪽.

동력으로 기능한다.

#### 4. 결론

본 논문은 한국 설화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돌로 변한 여성’의 형상을 이야기의 종결 장치나 교훈적 상징으로 이해하는 기존 해석에서 벗어나, ‘돌-여자’를 설화를 생성하고 지속시키는 물질적 조건이자 비인간 행위자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장자못 전설>과 <망부석 설화>를 중심으로 여성이 돌로 변하는 사물화의 양상을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이 돌이 단순한 대상이나 재현물이 아니라 정동과 규범을 매개하는 존재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논의의 출발점은 여성의 ‘돌-되기’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인식이었다. ‘돌-여자’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단절을 의미하는 대신에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사물로서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마주쳐지는 존재가 된다. 이때 돌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전시를 통해 사람들의 시선과 신체를 반복적으로 멈추게 하고 질문과 해석을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돌-여자’는 서사의 결과물이 아니라 설화를 현재화하고 재서사화하는, 서사적 행위성을 지닌 행위자라 볼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은 ‘돌-여자’의 사물성을 ‘사물화’ 개념을 통해 재해석하였다. 여기서 사물화는 여성 인물을 대상화하거나 의미를 고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인간과 사물의 경계를 횡단하며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돌-여자’는 인간의 정념과 감정이 소멸된 결과가 아니다. 그것/그녀는 오히려 기다림, 침묵, 슬픔과 같은 정동이 응축된 상태로 지속되는 존재이다. 이러한 정동은 표현되거나 해소되지 않은 채 사물에 남아 유지되며 돌을 마주한 이들에게 다양하고 미세한 정동을 촉발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전시성이다. '돌-여자'는 특정 장소에 고정된 채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일상의 동선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전시성은 '돌-여자'의 장소의 점유와 사물의 시간으로의 이행 결과이다. 이러한 전시성은 '돌-여자'를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장으로 만들며 보는 이로 하여금 멈추고 바라보고 판단하게 만든다. 이때 발생하는 정동은 단일한 감정이나 교훈으로 수렴되지 않고 오히려 판단을 지연시키며 사유를 지속시키는 상태를 형성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동의 발생과 축적, 전이를 '규범적 힘'의 작동으로 개념화하였다. 여기서 규범은 명령이나 도덕적 지침을 의미하지 않는다. '돌-여자'가 만들어내는 규범적 힘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한 해석이나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판단해야 하는 상태에 머물도록 만드는 비강제적 영향력이다. 다시 말해 규범은 내용이 아니라 효과이며, 의미의 전달이 아니라 관계의 지속을 통해 형성된다. '돌-여자'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사물로서 규범적 힘을 획득한다.

이러한 논의는 설화 연구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설화 속 변신 모티프에 대해 인간 중심적 상징 해석에서 벗어나 사물의 지속성과 물질성을 중심으로 재사유할 가능성을 열어 준다. 둘째, 설화를 언어 텍스트로만 보지 않고 사물과 그 전시 조건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서사의 장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규범과 교훈을 전달하는 설화의 기능을 의미의 고정이 아닌 정동의 생성과 유통이라는 차원에서 재정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결국 '돌-여자'는 침묵하는 피해자도, 교훈의 상징도 아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생성하고,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의 감정과 사유를 작동시키는 사물이다. 이러한 점에서 '돌-여자'는 한국 설화 속에서 인간과 사물, 이야기와 장소, 정동과 규범이 교차하는 존재로 자리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1)』, 1989.

- 강진옥, 「변신설화에 나타난 세계인식(2)-김승원귀환생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88, 327~349쪽.
- 강진옥, 「변신설화에 나타난 세계인식양상(1)」, 『다국어수용선생회갑기념논총』, 1988, 1~655쪽.
- 강진옥, 「변신설화에서의 ‘정체확인’ 과 그 의미」, 『진단학보』 73, 진단학회, 1992, 165~185쪽.
- 김정은, 『『삼국유사』와 구비설화에 나타난 <치술령> 전승의 두 양상』, 『온지논총』 24, 온지학회, 2010, 43~72쪽.
- 김지혜, 「석화(石化) 모티프 등장 설화를 통해 본 상실과 애도의 층위」, 『문학치료연구』 59, 한국문학치료연구학회, 2021, 223~251쪽.
- 로지 브라이도티, 김은주 옮김, 『변신:되기의 유품론을 향해』, 꿈꾼문고, 2020, 1~551쪽.
-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역, 『정동이론』, 갈무리, 2015, 1~608쪽.
- 몸문화연구소, 『신유물론』, 필로소픽, 2022, 1~291쪽.
- 박다원, 『『삼국유사』 <내물왕 김제상>과 그 파생 열부설화의 전승의식 비교』, 『국학연구논총』 20, 태민국학연구원, 2017, 153~183쪽.
- 박신현, 「여성과 비인간의 이야기하는 몸: 물질적 텍스트의 해석과 번역」, 『비평과 이론』 28권 1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23, 67~93쪽.
- 백동인, 「新羅 金入宅의 여성 시조와 宅主-재매정택과 장사택을 중심으로-」, 『신라사학보』 64, 신라사학회, 2025, 15~59쪽.
- 브루노 라투르 외, 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 이음, 2010, 1~336쪽.
- 브뤼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2009, 1~404쪽.
- 심귀연, 『이 책은 신유물론이다』, 날, 2024, 1~182쪽.
- 제인 베넷, 문성재 옮김, 『생동하는 물질』, 현실문화, 2020, 1~334쪽.
- 조현설, 「동아시아의 돌 신화와 여신 서사의 변형-모석(母石)·기자석(祈子石)·망부석(望夫石)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6, 한국구비문학학회,

2013, 119~150쪽.

최학출, 「설화 모티프의 시적 변용—“석화”와 “거울화” 모티프를 중심으로—」, 『울산어문논집』 2,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85, 191~212쪽.

황인순, 「애정의 정념 양상과 의미작용—삼국유사 <박계상 설화>를 대상으로」, 『시학과 언어학』 17, 시학과언어학회, 2009, 69~87쪽.

ABSTRACT

The Meaning of Objectification in the Transformation  
into the “Stone-Woman” in Korean Folktales  
-Focusing on The Legend of Jangja Pond and The Legend of Mangbuseok-

Chung, Kyung-min

This study reinterprets the motif of women transforming into stone, which repeatedly appears in Korean folktales, moving beyond conventional readings that treat it as a narrative ending and instead understanding it as a condition for narrative generation. Focusing on The Legend of Jangja Pond and The Legend of the Waiting Wife Stone (Mangbuseok), the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objectification—women’s transformation into stone—through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new materialism. Previous scholarship has largely interpreted such transformations as punishment for taboo violations, expressions of frustrated desire, or symbols of moral virtues such as chastity. In contrast, this paper argues that petrification should be understood not as the closure of a narrative, but as the starting point that repeatedly generates storytelling.

To this end, the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stone-woman” and interprets the transition from human to nonhuman matter not as a rupture, but as a transformation of modes of existence. While losing human agency, the “stone-woman” acquires durability as a material object fixed in a specific place and becomes an exhibited presence repeatedly exposed to human perception. This material persistence anchors the narrative in space and enables its continuous reproduction through oral transmission, thereby constituting what can be termed narrative agency.

Furthermore, the “stone-woman” evokes diverse affects, allowing for multiple, layered interpretations rather than a single fixed meaning. This paper conceptualizes such effects as “normative power,” defined not as

explicit moral instruction or prescriptive command, but as a non-coercive and fluid influence formed through the repeated perception of the object. In conclusion, this study reconceptualizes folktales not as human-centered systems of meaning transmission, but as relational processes in which material objects, place, and affect interact to generate narrative.

**Key Words** stone-woman, objectification, new materialism, narrative agency, placeness, exhibition, affect, normative power

논문투고일: 2026.04.23. 심사완료일: 2026.05.13. 게재확정일: 2026.05.17.
--

